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최 선 일*

- I. 머리말
- II. 京畿道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發願文
- III. 彫刻僧 進悅 作 紀年銘 佛像과 그 系譜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후기 불교미술 연구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개별 僧侶匠人(이하 승장)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으로 밝혀진 승장은 鑄鐘匠 思印比丘와¹ 佛畫僧 義謙比丘가 대표적이다.² 이들 승장이 알려지면서 조선후기 범종과

* 서울특별시 문화재감정위원.

¹ 주중승 사인은 安貴淑, 「朝鮮後期 鑄鐘匠 思印比丘에 관한 研究」, 『佛敎美術』 9(동국대학교 박물관, 1988), pp.128-181을 참조.

² 불화승 의견은 李殷希, 「雲興寺와 畫師 義謙에 관한 考察」, 『文化財』 24(문화재연구소, 1991), pp.195-211; 安貴淑, 「조선후기 佛畫僧의 계보와 義謙比丘에 대한 연구(상)」, 『미술사연구』 8(미술사학회, 1994), pp.63-137과 「조선후기 佛畫僧의 계보와 義謙比丘에 대한 연구(하)」, 『미술사연구』 9(미술사학회, 1995), pp.153-201을 참조.

불화 연구는 개별 승장의 활동 시기를 바탕으로 양식적 특징과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³ 또한 조선후기 불상 연구에서도 事蹟記와 發願文을 토대로 개별 조각승의 생애와 기년명 불상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접근을 통해 17세기 중반의 雲惠(雲慧)비구,⁴ 1700년을 전후한 시기의 色難(色蘭)비구,⁵ 18세기 후반의 戒初·封絃(奉弦)비구 등의 활동이 밝혀졌다.⁶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상을 종단 차원에서 조사하면서 불상 내에 봉안되었던 발원문이 공개되어 17세기 전반의 淸憲비구,⁷ 17세기 중반의 無染비구,⁸ 18세기 전반의 印性비구가 알려졌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활동한 많은 조각승이 파악되지 않아 각 시기별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변화과정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조각승 進悅비구는 필자가 1790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에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의 본존을 제작한 戒初비구의 스승인 尙淨비구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상정은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현재 그가 제작한 불상이 학계에 공식적으로

-
- ³ 심효섭, 『朝鮮後期 畫僧 信謙 研究』,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蓮史洪潤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2000), pp. 564-590; 이용운, 『佛事成功錄』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尙州 南長寺 掛佛幀』(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이종수, 『조선후기 畫僧 快允에 관한 고찰』,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순천 선암사 掛佛幀』(통도사성보박물관, 2002);姜永哲, 『18세기말-19세기초 경기지역 首畫僧 考察—楊州牧·水原府 首畫僧들의 畫籍을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瓦本 金東賢博士 停年紀念論叢』 3(동악미술사학회, 2002), pp.242-244.
- ⁴ 최선일, 『全羅南道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불교미술사학회, 2004), pp.199-219.
- ⁵ 김리나,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 33(국립중앙박물관, 1982. 12), pp.59-65; 崔仁善,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創刊號(한국문화사학회, 1994. 6), pp.129-158;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미술사연구회, 2000), pp.35-62와 『日本 高麗美術館 所藏 朝鮮後期 <木造三尊佛龕>』, 『미술사연구』 16(미술사연구회, 2002), pp.137-155.
- ⁶ 최선일,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조각승—戒初比丘를 중심으로』, 『東學美術史學』 4(동악미술사학회, 2003), pp.73-87.
- ⁷ 통도사에서 2004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4차 불교미술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조각승 청헌비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희정,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청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집』(불교미술사학회, 2004), pp.46-56.
- ⁸ 文明大,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新興寺) 목아미타삼존불상』, 『고려·조선 불교미술사 연구: 三昧와 平淡美—한국의 불상 4』(예경, 2003), pp.402-416.
- ⁹ 文明大, 『인성과 목불상의 조성과 도선사 목아미타삼존불상의 고찰』, 『聖寶』 5(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2003), pp.5-16. 문명대 교수가 인성비구가 제작한 기년명 불상 2구를 조사하여 인성파로 분류한 바에 따르면, 인성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운혜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다(최선일, 앞의 논문(2004), pp.214-215 참조).

소개되지 않았지만, 필자는 2002년 10월 경기도 모 사찰에 봉안된 그의 불상을 실견하였다. 그러나 사찰 측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불상과 발원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¹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상의 발원문이 조사되면서 상정의 스승이 太元비구이고, 태원이 참여한 불상 제작에 首畫僧으로 진열이 등장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 진열은 1706년에 전라남도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곡성 관음사 대은암 조성)을 조성할 때부터 首畫僧으로 등장하여 경기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노적사 조성)과 부산직할시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진열과 같이 활동한 太元, 태원과 같이 활동한 尙淨이 불상을 조성하고 중수·개금한 기록이 남아 있고, 상정의 제자인 계초가 1754년 전남 곡성 수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1790년 왕실에서 발원한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의 본존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조각승 진열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 중 1713년 경기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중심으로 양식적 특징과 발원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열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불상의 변화과정과 생애에 대하여 접근해 보겠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막연히 조선후기 불상이라고 거론되었던 불상 가운데 진열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8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상을 살펴보겠다.

II. 京畿道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發願文

경기도 고양시 상운사는 북한산 靈鷲峯 남쪽 중턱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인 조계사의 직할 사찰이다. 이 사찰은 1711년 북한산성이 축성된 후,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하여 건립되었던 11개의 사찰 중 하나로, 1745년에 性能대사가 간행한 『北漢誌』에 “영취산 아래 133칸 건물로 승장 회수가 창건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¹¹ 또한 1943년 安震湖가 편찬한 『奉恩本末寺誌』에 “1722년 승장 회수가 창건하였는데, 편액은 露積寺로 되어 있

¹⁰ 필자가 한국미술사학회 제131차 월례발표회(2002년 9월 28일)에서 「朝鮮後期 彫刻僧 尙淨과 그 系譜」를 발표할 당시 몇 분의 연구자가 상정은 조각승이 아니라 개금승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필자는 동년 10월 말 경기도 모 사찰에 봉안된 상정 작 기년명 불상을 실견하였다.

¹¹ “在靈鷲峯下一百三十三間僧懷秀所創”, 원영환 역, 『國譯 北韓誌』(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4), p.75.



도1 진열 작,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중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1713년, 고양 상운사 소장

고, 대략 133칸이다. 1813년 승장 太月 智聰이 중창하였다.”는 기록들을 통하여 상운사의 대략적인 연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1722년 상문사 창건과 노적사가 상운사로 바뀌었다는 기록은 본고에서 살펴볼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1713년 노적사에 봉안되었고, 관련 인물 가운데 창건주 회수가 포함되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¹²

1.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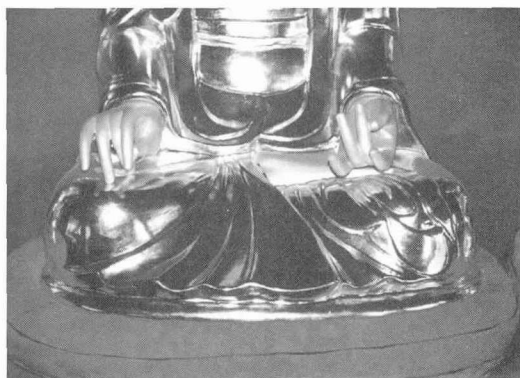
상운사 극락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의 북한산 불적조사를 계기로 1999년에 발원문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¹³.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모두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으로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은 신체비례와 조각기법이 동일한 반면, 관음보살은 본존과 비교하여 크기와 조각수법이 달라 다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¹² 1813년에 작성된 「祥雲寺極樂殿重創記」에 의하면 노적암이 상운암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¹³ 김창균, 「북한산지역의 불적과 불교미술」, 『北漢山の 佛教遺蹟』(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 2002), pp.175-179.



도2 진열 작,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13년, 높이 61cm, 고양 상운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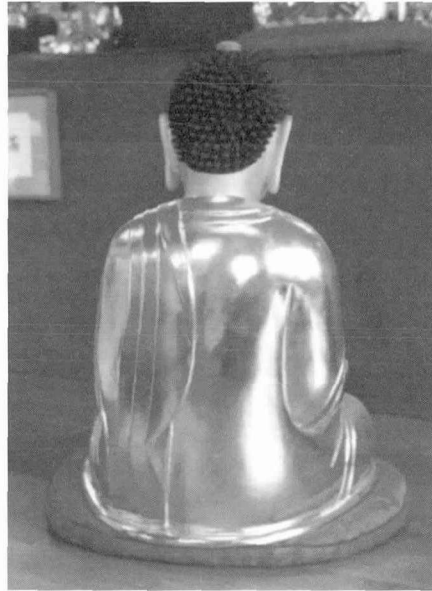


도3 진열 작,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하반신,
1713년, 고양 상운사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61cm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중형 불상이다^{도2}.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여 얼굴과 앉은키는 1:3.1의 신체비례를 보인다. 이는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불상과 거의 동일한 신체비례로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머리는 뾰족한 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肉髻로 표현되고, 육계 밑에는 반원형의 中間髻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원통형의 頂上髻珠가 있다. 방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곧게 뻗었으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는 阿彌陀手印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긴 물방울 같이 U자형을 이루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배 부분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자락과 겹쳐져 있다. 특히, 하반신의 대의 처리는 4겹 주름 가운데 가장 안쪽 주름이 넓게 펼쳐지고, 나머지 주름은 물결이 일렁이듯 접혀져 있다. 반대쪽 무릎에 걸친 대의자락은 연판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도3}, 이는 1700년을 전후하여 활동한 색난이 제작한 불상에서 볼 수 있던 특징이다^{도4}.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 표현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仰蓮形으



도 4 색난 作, 목조석가여래좌상,
1684년, 높이 86cm, 강진 옥련사 소장



도 5 진열 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뒷면,
1713년, 높이 61cm, 고양 상운사 소장



도 6 진열 作,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713년, 고양 상운사 소장

로 처리되지 않고, 수평으로 접은듯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불상 뒷면의 처리는 목 둘레에 大衣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도5}.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본존 같이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도6}. 화염보주로 장식된 커다란 보관 안쪽의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 따고, 나머지 머리카락은 보관 밑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기존에 제작된 다른 보살상과 달리 어깨와 무릎의 폭이 좁아 얼굴이 더 강조되고 있다. 대의처리는 본존과 동일하고, 손의 자세만 다른데, 오른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왼손을 가슴까지 들어 연화가지 를 쥐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보

면, 지물을 들고 있지 않아 1990년대 개금하면서 연화가지를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좌는 상단과 하단만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연화좌로, 본존이 앉은 대좌는 연잎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형태로 앞마다 간엽이 새겨져 있고, 연잎마다 바깥부터 흰색·적색·흰색·녹색 순으로 칠해져 있다. 이와 달리 보살상이 앉은 대좌는 2구 모두 복엽으로 바깥부터 흰색·녹색·적색·청색 순으로 채색되어 있다.

2. 발원문

불상에 관한 기록은 대좌의 상단 위와 아래에 조성발원문과 개금발원문이 적혀 있고, 이 외에도 관음보살상 대좌에는 다른 개금발원문이 묵서되어 있다. 조성발원문은 몇 글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 조성발원문 도7

① 하단

康熙五十貳年癸巳自七月初五日始役于至

八月念六日畢大成功也奉安于露積寺

極樂寶殿左補處觀音蓮臺也又

造成處則露積寺別室也

② 상단

緣化秩

證明 天機比丘

持殿 宗辨比丘

畫員 進悅比丘

靈熙比丘

太元比丘

處林比丘

清徽比丘

供養主 智日比丘

太清比丘



도7 조성발원문, 관음보살 대좌 상면.

1713년, 고양 상운사 소장

別座 三彥比丘
 化主 智暹比丘
 時任主□ 斗謹比丘¹⁴
 時任首僧
 祐世僧風摠領察事都摠大將
 嘉善大夫 故(歸와 同字)玉比丘



B. 개금발원문 도8

雍正八年庚戌六月日
 彌陀尊像改金三角山祥雲寺奉安于

緣化
 證師 致仁¹⁵
 持殿 處遠¹⁶
 畫員 白基
 玄特
 供養 義允
 別座 一湖
 化主 懷秀

도8 개금발원문, 아미타불 대좌 하면,
 1713년, 고양 상운사 소장

위의 발원문을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다.¹⁷

A. 강희 52년 계사 7월 초닷새에 시작하여 8월 26일에 이르러 성공리에 마쳤다. 노적사 극락보전 좌보처 관음을 연화좌에 봉안한다. 조성한 곳은 노적사 별실이다.

연화질 증명 천기비구 지전 종변비구

¹⁴ 위의 보고서에는 “斗□”으로 나와 있으나 ‘斗謹’이다.

¹⁵ 위의 보고서에는 “□仁”으로 나와 있으나 ‘致仁’이다.

¹⁶ 위의 보고서에는 “□遠”으로 나와 있으나 ‘處遠’이다.

¹⁷ 발원문의 교정과 감수는 직지사 성보박물관장이신 홍선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는 바이다.

화원 진열비구 영희비구 태원비구 처림비구 청취비구
 공양주 지일비구 태청비구 별좌 삼언비구 화주 지섬비구
 시임주□과 시임수승 두근비구
 우세승풍총령찰사도총대장 가선대부 귀옥비구 (*필자 진하계)

B.雍正 8 景 6월 일 삼각산 상운사 봉안 미타존상을 개금하였다.

연화 증명 치인 지전 처원
 화원 백기 현특 공양 의운
 별좌 일호 화주 회수 (*필자 진하계)

발원문 A에 의하면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1713년에 노적사 극락보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복사 별실에서 畫員 진열, 영희, 태원, 처림, 청취가 제작하였다. 특히 불상 제작에 證明을 맡은 天機대사는 색난이 제작한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에 시주와 발원문을 쓴 승려이다.¹⁸ 그는 號가 雲溪이고, 전남 강진 출신으로 碧巖 覺性(1575-1660)의 제자였음을 1663년에 건립된 華嚴寺碧巖大師碑 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⁹ 그는 1686년에 李判兼守禦使로 재직하고, 정수사 주지를 맡았을 때 통정의 관직을 가졌으며, 이후 教都摠扶宗樹教八道都摠攝兼僧大將과 資憲大夫 北漢山摠攝을 역임하였다.²⁰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산성 축조에 참여한 桂坡堂 性能大師 역시 벽암 각성의 문하에서 수행하고, 1699년에 구례 화엄사 丈六殿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색난이 제작한 개인 소장 불상 조성에 대화주로 참여하고 있다. 1711년 한양 수비의 요충인 북한산성 축성을 위임받아 八道都摠攝의 직위를 받고 9개월만에 축성을 완료하고, 화엄사로 돌아와 『山城記事』를 집필한 후에 1745년에 『北漢誌』를 편각하여 신임 都摠攝인 瑞鳳에게 인계하였다. 따라서 천기와 성능은 모두 벽암 각성의 제자로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이기에 조각승 진열이 활동한 지역

18 발원문의 施主秩에 “前判事天機”, 마지막 부분에 “康熙二十三年歲在甲子南至月下辭雲溪寒衲天機記”로 나와 있다. 崔仁善, 앞의 논문(1994), pp.129-158.

19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下)』(아세아문화사, 1976년 영인), pp.916-920과 『全南金石文』(全羅南道, 1990), p.65.

20 『湖南左道金陵縣天台山淨水寺輿地勝覽』人物條 참조(양광식 역, 『정수사지』(강진문화연구원, 1995), pp.82-84와 p.174).

을 밝히는 단서가 된다.

발원문 B는 1730년에 상운사를 창건한 懷秀가 화주를 맡고, 화원 白基비구와 玄特비구가 불상을 개금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불상을 개금한 백기는 1698년에 장릉 봉릉과 1718년에 민회빈 봉묘 조성 시 畫僧으로 참여하고,²¹ 江原道 춘천시 어린이회관에 所藏된 1727년 原州 龜龍寺 三藏圖를 주도적으로 그린 불화승이다.²²

III. 彫刻僧 進悅 作 紀年銘 佛像과 그 系譜

조각승 진열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상은 1706년 전라남도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시작으로, 1713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1722년 부산직할시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이 확인되었고, 그와 함께 활동한 태원이 수화승으로 1724년 강원도 춘천 청평사 불상을 제작한 기록이 남아 있다.

1. 조각승 진열 작 기년명 불상

1) 전남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서산사 관음전에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발원문은 2003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실시한 곡성지역 불교미술 조사를 계기로 공개되었다⁹. 보살상 바닥에 쓰인 묵서 발원문의 내용은 “……全羅道玉果縣縣南嶺聖德山也四山之中 下奇山 其山腰有觀音寺也其山之頭有大隱菴既已建成無 佛像之故 …… 是於始役於二月念五日也既畢於四月初五日觀音獨尊造成移運 …… 緣化秩 證明 健標比丘 畫員 進悅比丘 畫員 太元比丘 化主 海天比丘……”(※필자 진하계)이다.²³ 따라서 발원문을 통하여 <목조관음보살좌상>이 1706년에 곡성 옥과현 성덕산 관음사 대은암에 봉안하기 위하여 畫員 진열과 태원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백기가 『莊陵封陵都監儀軌』(奎章閣 14830호)과 『愍懷嬪封墓都監儀軌』(奎章閣 14837호)에 참여한 사실은朴廷憲, 『儀軌를 통해서 본 朝鮮時代의 畫員』, 『미술사연구』 9(미술사연구회, 1995), pp.203-290을 참조하였다.

22 『韓國의 佛畫 10-月精寺 本末寺篇』(聖寶文化財研究所, 1997), 圖 17.

23 『谷城郡의 佛教遺蹟』(國立光州博物館, 2003), pp.163-167.



도 9 진열 작, 목조관음보살좌상,
1706년, 높이 72.4cm, 곡성 서산사 소장
(『谷城郡의 佛敎遺蹟』 재촬영)

쳐져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는 4겹으로 겹쳐 가장 안쪽의 자락이 짧게 늘어서 S자를 이루고, 나머지 자락은 오른쪽으로 펼쳐져 있다. 그리고 반대쪽 무릎에 걸친 대의자락은 가장자리가 곡선을 그리고 길게 늘어져 있다. 이러한 대의자락의 표현은 앞서 살핀 1713년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대의 안쪽에 편삼과 가슴에서 대각선으로 접은 僧脚崎를 걸치고 있다. 뒷면의 대의자락은 목 주위를 따라 두르고 있으며, 왼쪽 어깨에는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2) 부산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부산직할시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은 2002년 경성대 한국학연구소의 조사를 계기로 대좌의 목서명이 조사되었다¹⁰. 發願文에 1722년 화원 進悅, 淸雨, 淸徽, 母大性, 玉惣이 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²⁴ 『梵魚寺誌』의 「梵魚寺毘盧三尊重修改金誌 金像觀音新造記」에는 화원 進悅, 寬性, 玉聰, 淸愚, 淸徽가 비로전 비로자나불을 중수·개금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전체 높이가 72.4cm, 무릎 폭이 39.8cm인 중형 불상으로, 얼굴과 상반신을 약간 앞으로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커다란 보관은 중앙에 頭光과 身光을 갖춘 化佛을 배치하고 좌우에 화불을 향하여 수평으로 날고 있는 봉황과 화염 등을 장식하여 화려하다. 방형의 얼굴에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간 채 반쯤 뜨고, 코는 곧게 뻗은 원통형이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따로 제작된 오른손은 가느다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어 아미타수인을 취하고, 왼손에는 엄지와 중지를 맞댄 손바닥에 목이 길고 注口가 달린 병을 살포시 쥐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 일부가 긴 물방울 모양으로 가슴까지 내려와 있고, 나머지 대의자락은 어깨 일부를 감싸고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반대쪽 대의자락과 겹



도 10 진열 작, 목조관음보살좌상,
1722년, 높이 102cm, 부산 범어사 소장

고,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한 것으로 적혀 있다.²⁵ 이 중 진열과 청휘는 1713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1719년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의 중수에 같이 참여하였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 102cm인 조선후기 중형 불상으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은 앞서 살핀 진열 작 보살상의 보관과 달리 원통형으로, 화염보주가 빈틈이 없이 장식되어 있다. 방형의 얼굴에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형태이고 콧날이 곧게 뻗어 있으며,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는 阿彌陀手印을 하고 있다.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두 어깨에 걸친 후 팔뚝을 지나 복부에서 U자형으로

겹쳐져 있고, 어깨에 걸친 天衣는 손목을 지나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복잡하게 엉켜 있다. 이러한 변형통견과 천의 표현은 1654년 제작된 범주사 원통전과 통도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등에서 그 시원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목에는 영락과 화염보주를 단 목걸이를 걸고 있고, 僧脚崎는 가슴에서 수평으로 접혀졌다. 이 보살상의 가장 큰 특징은 늘어진 머리카락, 천의를 묶은 보주, 하반신에 걸친 천의자락 등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기존 진열이 제작한 1706년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과 1713년 상운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과 얼굴의 印象만 유사할 뿐, 신체비례와 대의처리가 상당히 다르다.

24 『梵魚寺聖寶博物館 名品圖錄』(梵魚寺聖寶博物館, 2002), pp.188-189.

25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梵魚寺誌』(亞細亞文化社, 1989), p.59.

2. 진열과 그 계보 조각승의 생애

이제까지 진열과 그 계보의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의 발원문과 중수·개금한 사적기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활동 시기와 사제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과 관련된 기록은 발원문 7개와 사적기와 현판의 내용 11개가 있다 표1.²⁶

표 1 進悅 관련 기록

연대	지역	봉안사찰	작업 내용	조각승	현존 유무	비고
1695	전북 홍양	백련사	보처보살과 나한상 조성	성심(性沈) … 진열(震悅) …	○	「發願文」 현 전주 서고사 소장
1706	전남 곡성	관음사 대은암	관음보살좌상 조성	진열(進悅) 태원(太元)	○	「發願文」 현 곡성 서산사 소장
1713	경기 고양	노적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 조성	진열(進悅) … 태원(太元) … 청휘(淸徽)	○	「改金發願文」 현 고양 상운사 소장
1719	전남 남평	운흥사	지장보살 개금과 시왕 개채	진열(進悅) 태원(太元) … 도안(道眼)	○	「改金發願文」 현 목포 달성사 소장
1722	부산	범어사 비로전 관음전	비로자나불 개금과 관음보살좌상 조성	진열(進悅) 관성(寬性) 옥총(玉聰) 청우(淸愚) 청휘(淸徽)	○	『梵魚寺誌』
1728	강원 춘천	청평사	삼존불 조성	태원(太元) 도안(道眼) 외 2인	×	「清平寺事蹟記」 (『楡岾寺本末寺誌』)
1748	전남 장흥	보림사	신법당 개금	태원(太元) 상정(相淨) 외 9인	○	『寶林寺重修記』
1754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존불 개금	태원(太元) 상정(常淨) 우윤(宇允)	○	「改金發願文」
1754	전남 곡성	관음사 무진암	목조관음보살 조성	계초(戒初) … 칭숙(稱淑) …	○	「發願文」
1757	전남 구례	화엄사	대웅전삼존불 개금	상정(尙淨) 계초(戒初)	○	『華嚴寺事蹟記』
1767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미타존상 개금	상정(尙淨) 칭숙(稱淑) 우윤(宇允) …	○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²⁶ 필자는 은사님으로부터 진열이 제작한 불상과 발원문의 사진을 얻었으나, 비공개로 조사된 상황이라 본고에서 소개하지 않았다.

1769	경북 경주	불국사	대웅전 삼존과 관음전 독존 개금	塗金良工 호남 상정(湖南 尙淨)	○	『佛國寺古今創記』
1771	경북 김천	직지사	불상 개금	상정(尙淨) 계심(戒心)·…	○	「直指寺佛像改金施主秩」
1779	전북 정읍	원적암	아미타, 관음 조성 선운사 백련암 봉안	묵양당 계심(默讓堂 戒心)·…	○	「改金發願文」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780	전남 장흥	보림사	친왕 금강, 문수, 보현	계심(戒心) 칭숙(稱淑) 성민(聖民)	○ ×	『寶林寺重修記』
1782	전남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탱	봉현(封絃)·…	○	「發願文」 금산사성보박물관 소장
1787	전북 정읍	선운사	대웅전, 장륙전 불상 개금	계심(戒心)·… 봉현(封絃) … 융감(融鑑)·…	○	「禪雲寺大法堂丈六殿 八相殿改金各帖重修記」
1790	경기 화성	용주사	대웅전삼존불 조성	봉현(奉絃) 상계(尙戒) 계초(戒初)	○	「願文」

조각승 진열이 언제 어디서 출생하였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그가 수화승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제작한 불상이 전북 전주 서고사 나한전에 봉안된 사실이 2003년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가섭존자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내용은 “願文 歲次康熙三十四年乙亥五月廿三日 朝鮮國全羅道興德內居施主 文萬英伏爲 敬請良工新造成補處 迦葉尊者既畢功安可西嶺逍遙山白蓮社而伏願特爲己身 …… 施主秩 大施主 文萬英兩主 證明 道云比丘 持殿 能學比丘 畫員 性沈比丘 体遠比丘 敏性比丘 性印比丘 震悅比丘……(※필자 진하게)”이다¹¹. 따라서 <목조가섭·아난존자>와 <16나한상>은 1695년에 부안면 선운리 소요산 백련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고창군 흥덕면에 살던 문만영이 시주하여 畫員 성심, 체원, 민성, 성인, 진열 등이 제작하였다.²⁷ 이 기록은 진열의 스승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이를 통하여 진열이 性沈의 문하에서 불상 제작의 수련

²⁷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 p.179와 『별책』, p.113의 발원문을 검토하는 과정에 證明 다음에 나열된 승려 가운데 畫員이나 工匠 등의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직접 조사에 참여한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임석규 선생에게 문의하여 사찰 측에서 筆書한 발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한상 조성의 수화승이 畫員 性沈비구임을 알게 되었다. 가섭존자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사진을 제공해주신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와 임석규 선생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는 바이다.

도 11 가섭존자입상 발견
조성발원문, 1695년,
전주 서고사 소장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제공)



기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 중 성심이 제작한 여래상과 보살상이 발견되지 않아 진열 작 불상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후 진열은 1706년에 전남 곡성 관음사 대은암 <목조관음보살좌상>(현재 곡성 서산사 소장)을 제작할 때부터 수화승으로 등장하고, 1713년에 경기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좌상>을 조성하였다. 1719년에 목포 달성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을 태원, 도안 등과 개금하였는데,²⁸ 이 지장보살과 시왕상은 전라남도 남평 운흥사에 봉안되었던 것을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달성사로 옮겨왔다고 한다.²⁹ 또한 1722년에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간 청우, 청휘 등과 같이 부산 범어사 비로전 <비로자나불> 개금과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여, 이제까지 그의 활동 시기는 1695년부터 1719년까지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진열과 15년을 같이 활동한 태원이 1726년에 강원도 춘천 청평사의 불상 조성시 수화승으로 등장하

28 이 목조지장보살좌상은 1565년에 전라남도 남평 운흥사에서 조성되었다고 한다. 成春慶, 「達成寺 木造地藏菩薩 및 阿彌陀三尊佛」, 『文化史學』 14(한국문화사학회, 2000, 12), pp.69-98 참조.

29 성춘경 선생님은 위의 논문에서 조각승을 '道體'로 읽었으나, 태원과 같이 활동한 조각승은 道眼이다. 불상에서 나온 발원문은 다음과 같다. “十王像重修頤文 康熙五十八年己亥八月日記入 海東朝鮮國全羅左道南平縣南嶺德龍山雲興寺舊基成安地藏及兩大補處等重修改命而與此王重修改服臟新彩移安于新基事始於孟秋畢于仲秋之哉生魄爾仍茲奉祝 主上三殿下壽各萬千齊歲 城主 俞夏基 方伯 辛士哲 …… 緣化秩 畫員秩 進悅 太元 王楚 守英 道眼 熙遠 清輝 就詳 證觀 省悅 誦呪 廣悅 負木 丁七生 …… 願以此功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여 진열로부터 독립하였던지 아니면 진열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열은 17세기 중반에 태어나 성심의 문하에서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친 후, 18세기 전반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불상 조성과 개금을 주도한 조각승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15년 동안 진열과 같이 활동한 태원은 1728년에 강원도 춘천 청평사 <목조삼존불상>을 道眼과 조성하고, 1748년에 전남 장흥군 보림사 신법당 불상과³⁰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을 尙淨(相淨, 常淨)과 같이 개금하였다.³¹ 따라서 태원의 활동 시기는 1706년부터 1748년까지로, 진열의 활동 시기와 비교해 보면 둘의 관계는 동료보다 사제지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태원이 1748년 보림사 불상의 개금을 할 때, 보림사 승려들은 불상 개금에 필요한 금을 전주금장에게 사려고 했으나, 畫員의 말을 듣고 질이 좋고 가격이 싼 京城金으로 최종 결정하였다.³² 이를 통하여 개금불사 시 재료는 사찰이 조달하고, 작업은 화원이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원과 같이 활동한 尙淨(相淨, 常淨)은 1748년 장흥 보림사와 영광 불갑사 불상을 개금한 후, 1757년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존불>을 戒初와 같이 개금하였다. 화엄사 대

30 「長興府迦智山寶林寺法堂各殿閣僚舍重創燹瓦年月與工師化主別座等芳啣記錄」은 전라남도 장흥군 보림사의 중창과 중수 불사에 대한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한 필사본으로 대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가로 29.7cm, 세로 41.7cm 크기이고, 총 201면의 방대한 분량이다. 서문은 백암 성충의 문인인 忠勳이 썼으며, 1658년 법원전을 중수한 기록을 시작으로 1954년 사천왕문 등의 수리까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경 감수, 김희태·최인선·양기수 譯註, 『역주 보림사중창기』(장흥문화원, 2001) 참조.

31 “主佛三改金序記 奧昔天啓三年 癸亥新造成矣逮 至乾隆八年癸亥四月日二次改金而于時神祇不護小有未安妥之……緣化秩 證明 玄眼 同參大禪師 竺桂 震和 持殿 察衍 通呪 義淨 敏浩 畫員 太元 常淨 宇允……”, 『靈光 母岳山 佛甲寺—地表調査報告書』(동국대학교 박물관·영광군, 2001), p.40.

32 “3월에 주지 法號 再正 화상은 僧中에서 拔萃한 분이다. 그 聖像의 도금이 떨어져 티끌이 앉는 것을 개탄스럽게 여기고, 대중이 모인 곳에서 함께 일을 의논하고, 西浮屠 화주 震禪과 동지 斷金이 勸善으로써 나름대로 재물을 모을 때, 진선화사인 左座와 順潤 首座가 일찍이 특별한 사이로 힘을 모아 권화하니, 3인이 한 마음으로 권화하여 두세 달 동안 금값을 살펴봄으로써 금을 살 계획을 세우려 할 때, 全州 金匠이 그 개금 소문을 듣고 본사를 찾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기도 하여 여러 곳에서 서로 하려는 까닭으로 의견이 분분해지자 화주는 전주 금장의 말을 믿고 全州金을 사기로 하였는데, 화상이 각 방 老德의 말을 물어보자, 금은 京城에 있으니 경성으로 사람을 보내 금을 사오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하였다. 그럼으로 화상의 굳은 고집으로 경성 금장 金鑿 遠 집에 사람을 보내어 금을 사 가지고 와서 같은 해 윤7월 초7일에 일을 시작하여 같은 달 23일에 마쳤다. 봉안할 금의 경중과 좋고 나쁨은 畫員들만이 자세히 아는 것임으로 화원의 말에 의하면 ‘전주 사람의 속이는 말에 속지 말 것이며, 서울에서 사온 금을 자세히 판단해본 즉, 금은 好品이며 가격도 높지 않아 심분 다행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고경 감수, 김희태·최인선·양기수 譯註, 앞의 책, pp.85-88.

웅전은 1630년 남한산성을 축조한 벽암 각성이 중건한 건물로, 1757년에 대웅전 중수와 불상의 개금 및 후불탱화 조성이 이루어졌다. 당시 관련되었던 인물을 살펴보면, 證明은 大禪師 處寬, 片手는 快演, 佛畫는 義謙으로 당대 최고의 명성을 지녔던 승려들로 불상의 改金을 맡은 상정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³³ 또한 의견이 조성한 불화에 “施主比丘 常淨伏爲 先亡 父母祖上列名靈駕”라는 내용이 남아 있어 불화 조성에 재물을 시주했음을 알 수 있다.³⁴ 이후 상정은 1767년에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미타불을 칭숙과 개금하고, 1769년에 경북 경주 불국사 대웅전 삼존상과 관음전 독존을 개금하였다. 특히 후자의 사적기 내용에 “塗金 良工 湖南 尙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상정이 전라도 지역의 조각승임을 알 수 있다.³⁵ 또한 상정은 1771년에 戒心과 경상북도 김천 직지사 불상을 改金하여 1748년부터 1771년까지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원의 활동 시기보다 30년 정도 뒤져 태원과 상정이 사제관 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정과 같이 활동한 계초, 계심, 우학, 칭숙 등은 18세기 후반 여러 지역의 불상 조성과 개금에 참여한 조각승들로, 그중 계심과 봉현은 1790년 정조대왕이 발원한 화성 용주사 대웅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을 조성한 조각승이다.³⁶ 이들 역시 여러 지역의 사찰에 불상의 조성과 개금을 한 기록이 남아 있는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3. 진열과 그 계보 조각승 작 불상의 변화과정

조선후기 불상 가운데 발원문과 사적기를 통해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은 150여 점에 이른다. 이 중 수화승으로 진열이 제작한 불상은 본존 1점, 보살 3점이다. 진열이 제작한 불상은 조선후기 전형적인 불상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신체 비례와 대의 처리 등에서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진열 작 불상은 무염 작 1651년 강원도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12}과 색난 작 1684년 전라남도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

33 『華嚴寺事蹟』 “(仁祖)八年庚午碧巖大師等華嚴寺重建之役始”라는 문구를 통하여 1630년 직후 불상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1757년의 기록은 韓國佛敎研究院 著, 『華嚴寺』(一志社, 1990), pp.85-87과 『海東湖南道大華嚴寺事蹟』(『佛敎學報』6,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1969), p.211를 참조하였다.

34 『韓國의 佛畫 11—華嚴寺本末寺 編』(聖寶文化財研究所, 1988), p.235.

35 「慶尙道江左大都護府慶州東嶺吐含山大華嚴宗佛國寺古今歷代諸賢繼創記」, 『韓國寺誌叢書 佛國寺誌(外)』(亞細亞文化社, 1983), pp.43-91.

36 최선일, 앞의 논문(2003), pp.73-87.



도 12 무염 작,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0년,
속천 신흥사 소장(『한국의 사찰문화재-
강원도』 재촬영)



도 13 운혜 작, 목조지장보살좌상,
1667년, 높이 104cm, 화순 쌍봉사 소장

좌상) (강진 정수사 조성)과 비교하여 볼 때, 턱선은 수평으로 깎아 방향을 이루고, 얼굴의 양미간이 넓으며, 눈두덩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밋밋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전에 제작된 불상에 비하여 어깨 폭이 좁아지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긴 물방울의 U자형으로 늘어져 있는 표현은 1667년 운혜의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대의자락에 비하여 도식화가 이루어졌다^{도13}. 그런데 이러한 긴 물방울의 U자형의 대의자락은 이후 진열의 계보에 속하는 계심의 1779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목조대세지보살좌상>과 봉현의 1782년 실상사 약수암 목각도^{도14}와 1790년 화성 용주사 대웅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색난의 제자인 楚下과 夏天이 제작한 1706년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 팔상전 <목조석가여래좌상>과 1730년 경상북도 창녕 포교당 <목조석가여래좌상>³⁷ 등과 비교하면,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을

³⁷ 김창균, 「거창·창녕 포교당 성보조사기」, 『聖寶』 4(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2002), pp.157-172. 그러



도 14 봉현 作, 목각도, 1782년, 실상사 약수암 조성,
현재 금산사 성보박물관 소장(『국보』 재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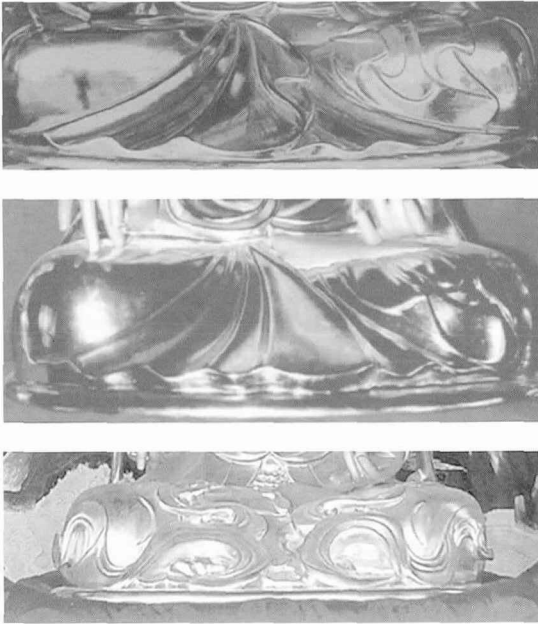


도 15 초변 作, 목조석가여래좌상,
1706년, 높이 77cm, 영광 불갑사 소장

초생달 같이 처리한 것과 차이가 있다^{도15}.

한편 진열이 제작한 불상의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대의 표현은 1706년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가장 안쪽의 대의자락이 S자형으로 처리되어 나머지 자락이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는 반면, 1713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가장 안쪽의 대의자락이 활짝 펼쳐지고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듯 표현되었으며, 1722년 부산 범어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대의자락 위에 천의자락이 걸쳐져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다^{도16}. 이에 비하여 상정이 제작한 불상의 대의자락은 밑으로 내려오다가 바닥 면에서 대의 사이로 연봉우리가 나온 듯 역오메가(Ω)형으로 처리되었다^{도17}. 이와 같은 대의 처리는 1782년 실상사 약수암

나 이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들은 색난과 같이 1699년 개인소장 목조불감, 1700년 해남 성도암 조성 나한상을 제작한 一機와 1720년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개체(『曹溪山松廣寺史庫』 第2目 片史 중 1720년 庚子 四月 四天王 重修改彩 참조)를 한 승려이다(최선일, 앞의 논문(2002), pp.137-155 참조).



도 16 진열 作 불상의 하반신 대의 처리
 上: 1706년 목조관음보살좌상
 中: 1713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下: 1722년 목조관음보살좌상



도 17 상정 作, 목조여래좌상



도 18 목조불감,
 18세기 후반,
 호림박물관 소장



도 19 목조여래좌상, 18세기 전반,
태백 장명사 소장(문화재청 사이트 제공)



도 20 목조여래좌상, 18세기 전반, 개인소장



도 21 목조지장보살좌상, 18세기 후반,
남양주시 흥국사 소장



도 22 목조여래좌상, 18세기 후반, 서울 봉은사 소장

목각도의 본존(금산사박물관 소장), 호림박물관 소장 목조불감도¹⁸,³⁸ 미국 금강산갤러리 소장 〈목조여래좌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색난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의 특징인 왼쪽 무릎을 완전히 덮은 연봉우리형의 대의 처리는 진열이 제작한 1713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증명을 맡은 천기가 1684년 색난이 제작한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강진 정수사 조성)의 발원문을 쓸 정도로 색난 작 불상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³⁹ 이후 진열이 제작한 다른 불상이 더 조사된다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열 작 불상의 승각기 표현은 18세기 대부분 불상의 승각기 상단에 연판형의 주름을 표현한 것에 비하여 진열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 3점은 승각기를 수평이나 대각선으로 접은 표현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까지 진열과 그 계보의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각 조각승의 양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불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면,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강원도 태백 장명사 〈목조여래좌상〉^{도19}· 부안 내소사 지장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순창 두암사 대모암 〈목조여래좌상〉· 개인 소장 〈목조여래좌상〉^{도20} 등은 1713년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인상과 대의 처리 등이 동일하여 진열이 활동하던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양주시 흥국사 〈목조삼존불좌상〉과 〈목조지장보살좌상〉^{도21}과 서울 봉은사 〈목조여래좌상〉^{도22}, 고창 문수사 〈목조여래좌상〉 등은 계초와 봉현 등이 제작한 목조여래좌상과 인상이나 대의 처리 등에서 유사성을 가져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후기, 18세기 활동한 조각승 중 상당한 영향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열과 그 계보의 조각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생몰 연대와 그의 스승인 성심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지만, 진열의 계보가 性沈(?-

³⁸ 최선일, 『湖林博物館 소장 木造佛龕에 관한 연구』, 『미술사연구』 9(미술사연구회, 1995), pp.333-338.

³⁹ 최선일, 앞의 논문(2000), pp.35-62.

1695 활동)→進悅(1695-1722 활동)→太元(1706-1748 활동)→尙淨(1748-1771 활동)→戒初(1748-1790 활동), 封珪으로 사제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18세기에 접어들면 불상의 제작보다는 중수와 개금이 조각승들의 주요 활동이 되었다. 이는 16세기 말의 임진왜란 동안에 소실된 사찰의 중창과 더불어 본격적인 불상의 제작이 17세기 전반부터 후반까지 이루어져 대부분 사찰에 불상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법당에 봉안된 불상은 불화와 달리 탈색이나 변형이 되지 않아 화재 등의 특별한 재해를 당하지 않는 한 불상을 새로 조성할 필요가 없어서 18세기 중반을 넘어가면 불상 제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조각승 진열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의 활동지역은 전국에 걸쳐 있지만, 발원문과 사적기 등 19개의 작업 지역을 보면, 호남이 12곳, 영남이 4곳, 경기 2곳, 강원 1곳으로 대부분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열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 상정이 『佛國寺古今創記』에 “塗金良工 湖南 尙淨”으로 기록되었고, 계초와 봉현이 용주사 불상을 제작할 당시의 기록인 「諸人芳啣」에 釋迦如來는 전라도 정읍 내장사 通政 戒初, 西方阿彌陀佛은 전라도 지리산 파근사 通政 奉絃으로 적혀 있다. 따라서 진열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열이 조선 후기 활동한 조각승 현진, 청헌, 무염, 운혜, 색난 등과 관련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은 17세기 중반의 불상에 대한 체계적인 복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국 사찰에 봉안된 조선 후기 불상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17세기 후반의 불상에서는 진열의 스승인 성심이, 18세기 중반에서는 태원과 상정이 제작한 불상이 발견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개별 조각승의 생애와 계보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불상의 시기성과 변화과정이 명확해졌으면 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木造阿彌陀三尊佛(Wooden Amitābha Triad), 彫刻僧(Monk-sculptor), 進悅(Jinyeol), 尙淨(Sangjeong), 發願文(Dedicative Inscription)

국문초록

본 논문은 경기도 고양시 祥雲寺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제작한 進悅비구에 관한 연구이다. 이 불상은 1999년에 대한불교조계종 조사단에 의하여 발원문이 처음으로 조사되어 조선 후기 불상연구에 기준 작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발원문에 의하면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1713년에 노적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천기대사가 증명을 맡고, 지심이 化主가 되어 진열, 영희, 태원 등이 제작하였다. 證明을 맡은 천기대사는 17세기에 전라도에서 활동한 碧巖 覺性(1575-1660)의 제자로, 色難이 1684년에 전라남도 강진 정수사 나한전에 제작한 불상의 발원문을 쓴 승려이다. 그리고 조각승 진열은 1695년에 전라북도 전주 서고사 〈목조나한상〉(부안 백련사 조성) 조성에 참여하고, 1706년에 전라남도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곡성 관음사 대은암 조성)과 1713년에 경기도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노적사 조성) 조성에 首畫僧으로 등장하였으며, 1719년에 전라남도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상〉을 개금한 후, 1722년에 부산 범어사 비로전 〈비로자나불〉 개금과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작업현황은 진열을 비롯한 조각승들이 18세기 전반 여러 지역의 사찰에 불상을 조성하거나 17세기에 제작된 불상의 중수·개금을 주로 하였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원문과 사적기를 중심으로 진열은 1670년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 1690년을 전후하여 佛像製作의 수련기를 보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00年代에는 전라남도 곡성과 경기도 고양, 전라남도 목포, 경상도 부산 등의 寺刹에서 활동하였는데, 진열이 제작한 불상의 특징은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불상에 비하여 어깨가 좁아져 얼굴이 강조되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긴 물방울처럼 U자형으로 늘어져 있으며, 하반신을 덮은 대의의 안쪽 자락이 S자로 펼쳐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불상은 경기도 고양시 홍국사, 강원도 태백 장명사, 부안 내소사 지장암 등에 봉안되어 있어 진열을 위주로 한 彫刻僧들이 18세기 전반에 全羅道 地域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弟子인 太元이 1726년에 강원도 춘천 청평사 불상조성에 首畫僧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진열로부터 독립했거나 진열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가 속한 조각승 계보는 性沈→進悅(1695-1722 활동)→太元(1706-1748 활동)→尙淨(1748-1771 활동)→戒初(1748-1790 활동)로 이어진다. 또한 진열이 제작한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 상정과 계초가 제작한 불상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18세기 후반 진열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경기도 남양주 홍국사, 서울

봉은사 등에 남아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진열과 그 계보의 조각승들이 18세기 불교조각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Wooden Amitābha Triad of Sangunsa and the Monk-sculptor Jinyeol

Choi Sun-il

This study explores a seated wooden triad of Amitābha in Sangunsa, Goyang, Gyeonggi province. The triad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piece in the study of Buddhist sculptu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particularly for a dedicative inscription placed inside the image, which was discovered in 1999. The inscription tells that the creation of the triad was supervised by the master Cheongi and conducted by such monks as Jinyeol, Yeonghui and Taewon and that it was installed in Nojeoksa in 1713. The master Cheongi is a disciple of Gakseong (1575–1660),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uddhist community in the Jeolla province during the 17th century. He also wrote a dedicative inscription for a Buddhist statue made by a famous monk-sculptor Saengnan in 1684 for an arhat hall in Jeongsusa, Gangjin.

Jinyeol made a number of Buddhist images: images of Kāśyapa, Ānanda and sixteen arhats in Seogosa, Jeonju (1695); a seated wooden Avalokiteśvara in Seosansa, Gokseong (1706); a seated wooden Amitābha triad in Sangunsa (1713); a seated wooden Avalokiteśvara in Beomeosa, Busan (1722). He also engaged in the regilding of a wooden Kṣitigarbha in Dalseongsa, Mok-po in 1719 and a Vairocana in Beomeosa in 1722. A group of monk-sculptors headed by Jinyeol actively conducted the creation or repair of Buddhist images in diverse regions during the early 18th century.

Dedicative inscriptions and other records suggest that Jinyeol was born around 1670 and went through apprenticeship around 1690. Buddhist images created by him exhibit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narrow shoulders, which give emphasis to a face; the lower part of the garment draped around the right shoulder hanging down about the chest forming a U-shaped pattern; its inner part covering the lower half of the body falling in an S-shaped pattern.

Judging from the fact that his disciple Taewon was referred to as the head craftsman in a dedicative inscription for a Buddhist statue installed in Cheongpyeongsa, Chuncheon in 1726, it can be presumed that by this time Taewon worked independently or Jinyeol was already dead. The lineage of monk-sculptors initiated by Jinyeol's teacher, Seongsim, seems to have continued from Jinyeol (actively engaged in 1695-1722) to Taewon (in 1706-1748), then to Sangjeong (in 1748-1771) and Gyecho (in 1748-1790). Statues attributable to Jinyeol's successors are found in Heungguksa in Namyangju and Bongeunsa in Seoul.